노예로의 초대

(창44:1~34)

14.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이르니 요셉이 아직 그 곳에 있는지라 그의 앞에서 땅에 엎드리니
15.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나 같은 사람이 점을 잘 치는 줄을 너희는 알지 못하였느냐
16.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이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이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오늘 44장 전체 말씀 중심으로 <노예로의 초대>라는 제목의 하나님말씀 증거 합니다.

'노예로의 초대'
1863년 1월 1일에 에이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노예해방선언을 합니다.
그 첫 구절이 "현재 미국에 반대하여 반란 상태에 처한 모든 주 또한 주의 일부 지역에서 노예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1863년 1월 1일 이후로 영원히 노예상태로부터 해방될 것이다"라고 시작하는 노예해방선언문이 미국의 건국이념인 자유와 평등 개념에 생명을 불어넣었습니다.
생명을 불어넣었다는 이야기는 자유와 평등이라는 건국이념이 단순히 개념의 차원에 머물지 않고 실제 생활 속에서 구체화되었다는 것이고, 자유와 평등이라는 개념을 실천했다는 것입니다.
노예해방선언은 남북전쟁 중반쯤에 일어난 일이었고, 노예해방을 둘러싸고 일어난 남북전쟁이 무려 4년 동안이나 계속되었습니다.
역사를 보면 미국의 남북전쟁뿐만 아니라, 영토를 확장하려는 왕의 야심에 의해서 이루어진 전쟁이 아니라면, 거의 모든 인간의 갈등과 전쟁이 한 마디로 구속 상태에서 해방 상태로의 발전을 위해 치러졌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노예 상태에서 해방 상태로의 진행이 역사의 진행과 맞물려 들어가고, 그 결과로 지구에서 대부분의 나라들이 누리고 있는 민주주의라는 꽃이고 열매입니다.
역사는 자유를 찾아 움직인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속의 상태, 노예의 상태, 구속의 상태에서 자유를 찾습니다.
자유는 한 인간이 태어나서 생애를 스스로 책임지는 것인데, 인생에서 무엇을 하고 살면 행복할 수 있을 것인가를 결정하고, 그것을 소원하고 계획하고 추진하는 것인데, 이렇게 될 수 있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지금까지 온 것이고 그 결과가 바로 민주주의를 꽃피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인간을 원래 어떻게 만드셨을까요?
이 자유를 위한 인간의 투쟁과 민주주의라는 결과가, 창조 때의 인간에 대해서 가지셨던 하나님의 생각과 잘 매치가 되고 부합되는 것일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창조 때에 인간에게도 진행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어떤 길로 가야된다는 길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 길은 인류 역사가 진행되어 왔던 그 길과는 반대방향입니다.
하나님이 원래 인간을 만드실 때 해방된 상태, 그 무엇에도 예속되지 않은 상태로 만드셨습니다. 자유인으로 만드셨어요. 그 자유인으로 만드신 상태에서 인간을 노예 상태로 초대하셨습니다.
노예 상태로 초대했다는 이 말이 참 이상합니다.
초대라는 것은, 즐거운 파티에 초대를 받거나 높은 사람들만 모이는 자리에 내가 영광스럽게 초대를 받아 참여했을 때, 하다못해 영화시사회에 초대를 받았을 때, 장관들만 모이는 자리에 전문 지식인으로서 조언을 위하여 초대되는 것이 영광스러운 것이고 이것이 초대인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자유인으로 만들어 놓으시고 노예로 초대하시면서 “네가 자유인으로서 자발적으로 나의 노예가 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노예로의 초대를 망각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 교회의 비극이 아닌가합니다.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노예 상태로 들어오라고 하신 것이고, 그것이 진정한 축복의 자리이고, 타락하기 이전에는 노예의 상태가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지위 중에서 가장 복된 지위였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에이브라함 링컨은 노예해방을 선언하고, 마귀는 인간에게 다가와서 노예 이탈을 선언합니다.
노예 상태가 아니니 노예로부터의 해방은 아니지만 노예로의 초대의 길이 열려있습니다.
인간의 살 길은 그 길 밖에는 없는데, 그 길로부터 이탈하도록 만들었고, 하나님처럼 되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노예로 초대받은 자들에게 하나님처럼 되라고 유혹을 한 것이고, 하나님처럼 된 결과로 인간은 주체적으로 자기의 삶을 영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류의 역사가 갈등과 전쟁의 역사인데 그 이유가 마귀에 의해서 노예로의 초대를 거절한 상태가 되어 자기가 주체적으로 자기의 생을 책임지는 상태를 회복하려고 인간은 전쟁을 치러왔고 그 결과가 민주주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민주주의라는 것은 반쪽성공입니다.
인간이 인간에 대해서 노예가 될 수는 없고, 인간이 인간을 노예화할 수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민주주의는 성공입니다. 그러나 그 민주주의 안에서 모든 인간이 자기의 생과 자기의 삶에 대해서 스스로 주체가 되었다는 점에서는 민주주의는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고, 마귀에 대한 동조입니다. 결과적으로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노예로 초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노예 자리인 그 자리가 가장 복된 자리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노예 이탈 선언을 하므로 "모든 인간들이여 노예로의 초대를 거절하라. 노예로 가는 길에서 벗어나라. 네 스스로 하나님처럼 주체가 되라"고 합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만이 주체가 되어야 하는데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만을 유일한 주체로 인정하는 것을 위해서 인간을 주체적인 인격으로 만드셨습니다.
인간의 주체성은 노예 되는 데에 쓰이는 것입니다. 내가 자발적으로 노예 되기로 결심하는 데에 쓰임 받게 만들어 진 것이 인간의 주체성인데, 자기의 삶을 책임지려고 인간이 주체성을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이 타락 후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선택하시고 선민을 한정지으십니다.
이 사람도 타락한 상태로 선택 받는데 그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거추장스러운 일은 나의 주체성입니다. 나의 주체성은 내게 좋은 것을 내가 판단하는 것입니다.
'돈이 있으면 좋겠다. 인정받으면 좋겠다. 내 자식이 서울대 가면 좋겠다.'라는 이것이 바로 주체성의 시작인데, 이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추진해 나갑니다. 추진해 나갈 때 방해물이 있으면 제거하려 하고 피해가려 하고 넘어가려고 하는데, 이 모든 것들이 다 주체적인 인간의 모습들이죠. 그런데 주체성은 그런 곳에 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 인생의 진행은 하나님의 주체성에 의해서 진행되어 가는 것이고, 가장 복된 길이고 에덴을 유지할 수 있는 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주체성이 내 삶을 이끌어 가시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하나님의 초대를 받아서 노예가 되면 됩니다. 노예처럼 좋은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노예를 나쁘게 생각해서 그렇지 뒤집어서 한 번 생각해봅니다.
주인과 노예의 관계에서, 노예는 주인이 하는 말을 그대로 다 받아서 해야 됩니다. 주인이 좋다고 하면 자기도 좋다고 여겨야 해요. 주인이 생각하는 것을 그대로 받아서 해야 해요. 주인의 말과 행동을 다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것을 나쁘게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 적용해봅니다.
하나님의 노예가 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모든 것을 고스란히 담아내는 것입니다. 사람의 주인과 노예의 관계에서도, 주인이 선한 경우에는 그 주인의 말대로 하는 것이 노예에게 기쁨이 될 수 있어요. 하물며 하나님의 노예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생각을 다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창조주의 생각이고, 의로운 생각이고, 복된 생각이고, 평강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 생각에서 나온 말씀이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생각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노예가 되면 이 하나님을 고스란히 다 받아내는 거예요.
이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주체적으로 만들어진 인간이 노예가 된다는 것은 생선을 손질하는 것과 같습니다.
오징어 같은 것을 손질 할 때에 보면 배를 가르고 내장을 싹 긁어냅니다.
내가 주체성을 가진 인간으로서 자발적으로 노예가 된다는 것은, 내 주체성을 내 안에서 생선의 내장을 긁어내듯이 싹 긁어내 버린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속에 하나님의 주체성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주체성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하나님의 인격을 받아들인다는 것이고, 하나님 자신을 받아들인다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고스란히 하나님 전부를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노예가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성질이 고약한 주인의 노예가 된 자들은 고스란히 받아내야 하므로 괴롭습니다.
인간으로서 노예를 거느리고 있는 주인들은 죄인 아닌 사람이 없습니다. 더군다나 노예 앞에서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을 때에 괴물이 아닌 사람은 없습니다.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을 때 사람 속에 잠재되어 있던 괴물성이 나타나는데 그것을 다 받아내려니 인간의 노예가 된 인간들은 힘이 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노예가 된다면 이보다 더 좋은 것이 없습니다.
쉽게 말해서 노예라는 것은 우리가 총애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야곱이 요셉을 편애할 때처럼 총애를 받는 것입니다.
회장님의 총애, 사장님의 총애, 대통령의 총애… 총애를 받는 것 우리가 좋아합니다.
노예라는 것은 주인이 올바른 사람일 때에 총애 받음의 극한점이 되는 것인데, 주인 그 자체를 송두리째 받아버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 노예로 초대하셨는데, 마귀가 노예이탈 선언을 해버렸습니다.
“모든 인간들이여 노예로의 초대를 거부하고 노예가 되는 길에서 벗어나라. 그것이 너희가 하나님처럼 되고 너희의 주체성을 살려서 너희 스스로 너희의 인생을 책임질 수 있는 멋진 사람이 되는 길이다”
그리고 이 길을 따라가게 된 것입니다.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노예가 아닌 것이 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을 보면 엄청난 사건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2차 애굽 방문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어제까지 읽은 내용은 지금 2차 방문 때에 요셉이 형 시므온을 풀어냈고 모든 형제인 베냐민까지 자기 집으로 초대하여 만찬을 즐기고, 그들을 다시 가나안 땅인 아비 집으로 보내는데, 요셉이 몰래 지시를 해서 베냐민의 곡식자루에 자기가 사용하던 은잔을 집어넣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기분 좋게 돌아가고 있는 형제들을 요셉의 군사들이 뒤쫓아 가서 붙잡아서 은잔을 도둑질한 것을 이야기하고 확인했더니 베냐민의 자루에서 은잔이 나오게 됩니다. 영문을 모르지만 그 자루에서 잔이 나왔으니 모든 형제들이 이제 다 죽었다며 옷을 찢습니다.
요셉 앞에 끌려왔을 때에 모든 형제들의 대표로 16절에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이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이까”라며 탄원을 하는 내용이 나오고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라고 하자 요셉이 베냐민만 노예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자 유다가 22절에 “그 아이는 그의 아버지를 떠나지 못할지니 떠나면 그의 아버지가 죽겠나이다”라고 하며 자신을 노예로 삼고 베냐민을 풀어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장에서 그런 유다의 탄원을 듣고 그 자리에서 울음을 터트리면서 형들에게 자기의 신분을 드러내는 극적인 장면이 벌어집니다.
본장에서 유다가 계속해서 자기를 노예로 삼아달라고 탄원을 하는데, 요셉을 팔아버릴 때에 죽이겠다고 한 형들을 설득해서 노예로 판 당사자가 유다입니다. 그런데 그 요셉 앞에서 자기 자신이 노예가 되겠다는 탄원을 하고 있습니다. 기가 막히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야곱 집안의 3大 사건이 있습니다.
요셉이 자기 주체성을 거부하고 늘 하나님의 주체성에 귀를 기울였던 것과, 아버지 야곱의 집에서 살 때에나, 노예로 팔려서 보디발의 집에서 일할 때에나, 모함 받아서 죄수로 감옥에 갇혔을 때에나 요셉이 한 것은 늘 하늘에 계신 여호와로부터 어떤 말씀이 들리는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요셉은 노예로 팔려오기 이전부터 이미 노예로의 하나님의 초대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노예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총리까지 된 이 사건이 큰 사건입니다.
두 번째 사건은 아버지 야곱이 축복 주도권을 쥐었던 사건입니다.
하나님과 겨루어서 축복 주도권을 놓지 않을 정도로 강렬하게 이 세상 복에 대해서 강한 집착을 보이던 야곱이었습니다.
그 야곱이 두 번째 애굽 방문을 앞두고 곡식이 없어서 죽게 된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일어난 일이지만, 축복 중의 축복인 아들을 잃으면 잃겠다고 결심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놓지 않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내 축복을 거두어 가시는 하나님일지라도 그 하나님을 붙잡겠

다고 하는 지점에 도달한 것이 두 번째 사건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건은, 유다가 자청해서 노예를 탄원하는 사건입니다.
이것이 왜 대단한 사건입니까? 이 의미를 알기 위해서 42장을 봅니다.
1차 방문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에 시므온이 볼모로 잡혔다는 사실을 보고하면서, 애굽의 총리가 막내인 베냐민을 요구한다고 아버지 야곱에게 전하자 야곱이 아주 큰 탄식을 하면서 낙담합니다.
이때 르우벤이, 시므온을 살리기 위해서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하는데 37절에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이다"라고 합니다.
르우벤이 좀 멍청하긴 합니다. 베냐민을 데리고 가서 베냐민과 시므온을 둘 다 잃게 되면 야곱에게 큰 손실입니다. 그런데 손자인 르우벤의 두 아들을 거기서 더 잃으라는 말입니까?
어쨌든 자기 나름대로 충정어린 탄원을 합니다.
43장에서 두 번째로 가야하는 상황에서 유다도 똑같은 청원을 합니다.
9절에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이 말은 죽을 때까지 죄인이라는 말인데, 죄인이면 죗값을 치러야 하는데 유다가 생각하는 죗값이 어떻게 표현되는지에 대하여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16절 이하에 보면 죗값을 치르며 노예가 되겠다고 합니다.
르우벤과 비교하면 르우벤은 잘못이나 죗값을 치르며 자신에게 소중한 것으로 죗값을 치르려고 합니다. 그런데 유다는 그 죗값을 자기가 노예가 됨으로써 보상하려고 합니다.
이 유다의 노예가 되기를 자처하는 것의 의미는, 인간에게 일어날 수 있는 죄와 잘못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에게 일어나는 모든 잘못과 모든 불행과 모든 슬픔과 모든 걱정은 노예가 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유다는 경험했습니다.
세겜의 대학살이 있었고, 맏형 르우벤이 서모를 범하는 패륜이 일어났고, 자기들이 합심해서 동생 요셉을 팔아버렸습니다. 그 뒤로 그 죄의식 때문에 도저히 그들과 함께 있을 수가 없어서 집을 나가서 새 출발을 합니다. 새로운 사람을 사귀고 아내를 얻었고 자식들을 낳았고 양들을 키우며 잘 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죽고 두 아들이 죽고 자기는 며느리와 동침을 해서 며느리가 자기의 아이를 갖는 흑암과 혼돈과 공허 속에 휩싸여 버리고 맙니다. 그 때에 깨달은 것입니다. 이 모든 흑암과 혼돈과 공허의 깊음 속으로 빠지는 이유가, 나의 주체성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스스로 내 인생을 이끌어 가려고 하고 스스로

합리적인 방법을 생각해내는 자기 자신을 알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생각하는 내 안에 있는 것이고, 내 인생에서 합리적으로 좋은 길을 찾으려고 하는 습관에 있는 것이고, 나의 주체성에 있다는 것을 알았는데 이게 대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이 유다의 깨달음이 모든 선민의 깨달음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430년 동안을 노예로 살게 하시는데, 노예로 살게 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노예로 살면서, 하나님의 노예가 되지 못한 것이 인간의 가장 큰 문제라는 것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자리가 노예입니다.
아무런 자기의 생각과 소원조차 가질 수 없는 자들이 노예인데, 이 노예의 자리가 가장 행복한 자리라는 것입니다.
르우벤 경우에서는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죄를 지으면 죗값을 치르면 끝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유다의 노예가 되겠다는 마음은 죄의 뿌리를 캐내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주체성을 마음대로 휘두르고 있는 존재인 한, 죄가 계속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저지른 죗값에 대해서 주님께서 보상하셨다는 생각만 하고 있는데 그 잘못들의 뿌리가 되는 주체성은 그래도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또 잘못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유다의 노예가 되겠다는 생각은 그 뿌리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 뿌리를 뽑아내야 하는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을 마음으로 바라봅니다.
마치 구리 뱀 장대를 쳐다보는 것처럼 마음으로 십자가에서 주님이 죽으셨다는 것을 바라보면서 내가 죽었다는 생각을 할 뿐인데, 나의 모든 주체성이 다 사라져버립니다.
본래 타락이전에 하나님의 노예로의 초대가 다시 살아납니다. 그리고 내가 죽었다는 생각 속에서 머물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통째로 내 안으로 받아들여지시고, 하나님 자신이 가장 큰 축복인 것을 알게 되고, 요셉에게서처럼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십자가가 복음인 것은 노예로의 초대를 회복시켜주시기 때문입니다.
마귀에 의해서 노예로의 초대를 거부하고 노예가 되는 길에서 이탈했던 인간들을 다시금 하나님이 창조이전에 계획하셨던 복된 길인 노예로의 초대로 회복시켜주는 사건입니다.
놀라운 사건 아닙니까?
유다가 왜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혈통의 우두머리가 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실 일에 대해서 근본적인 준비를 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죄의 뿌리를 봐라. 주체성을 내가 쥐고 휘두르는 한, 내가 생각하고 내가 좋은 것을 판단하고 그것을 소원하고, 계획하고, 안 이루어졌다고 걱정하고, 이루기 위해서 정열과 끈기와 추진

력을 가지고 달려가는 모든 것들이 불행의 이유이고 생의 모든 죄악이 나오는 샘이라"는 것을 유다가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3대 사건 중의 하나입니다.
유다가 아버지에게 했던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라고 했던 말도 평생 아버지의 노예로 살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노예 친화적 자아의식.
유다에게 있어서는 노예가 가까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체성을 고스란히 받아들이기 위해서 자기 주체성을 제거해버리려고 몸부림치는 자들이 바로 선민입니다.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노예로의 초대를 회복하셔서 가장 행복한 노예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노예로의 초대를 거부하게 하고, 노예이탈 선언을 지금도 우리 귀에 들려주고 있는 마귀의 음성을 십자가로 물리치게 하시며,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언제나 마음에 머무심으로 어찌할 수 없는 나의 주체성이 근본적으로 제거되게 해주심으로써 하나님의 노예로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